

체류형 힐링관광 기반 구축 빛났다 연말맞이 문화행사 ‘풍성’

진안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진안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5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 추진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각 지자체의 관광개발계획과 추진 성과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실시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평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관광 계획의 타당성과 차별성, △지자체·지역주체·광역의 협력체계, △관광수요 창출 가능성, △사업 종료 이후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2021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진안군은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로 ‘우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진안군은 △홍삼체험 테라피 공간개

선, △마이리 공간 디자인 등 관광 개발사업의 성과와 함께 △문화이벤트 정례화,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협의회 조직화 등 관광 진흥 부문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역의 자연·문화·생활자원을 재해석해 체류형 힐링관광 기반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홍삼테라피 야외족욕장’ 조성을 완료하고, 마이산을 조망할 수 있는 야외 족욕장 운영, 테마형 행사 개최, 마이산 북부를 순환하는 ‘빠방버스’ 운행을 병행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을 크게 늘리는 한편, 관광지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주민주도형 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형 구축해, 문체부가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지역 주도형 거버넌스’의 모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마을 관광 연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품질 개선, 콘텐츠 고도화,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관광거점과 마을 간 연계 구조를 정교화해 지속 가능한 관광수요 창출과 재방문 확대에 이여진 점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그간 진안군이 추진해 온 마이산 북부 거점관광의 연계·확장 가능성과 방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 자원과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모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고도화, 주민참여형 관광모델 확대, 치유관광 산업 전 분야 체계적 산업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클래식 상설공연·인형극·청년작가 전시회 등 다채

장수군은 12월 한 달 동안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문화행사는 장안문화예술촌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상설공연을 시작으로 청년작가 전시회, 계북행복나눔터 인형극장 꼭두의 인형극 ‘손님’ 공연 등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장안문화예술촌의 클래식 상설공연은 매회 오후 7시에 열리며, △11일 ‘나에게 익숙한 노래’에서는 이문세, 이승철, 김범수 등 대중에게 친숙한 가요를 클래식 연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또한 15일 공연에는 차르다시, 타이즈 명상곡 등 클래식 레퍼토리와 함께 ‘서른즈음에’, ‘걱정말아요 그대’ 등이 준비되어 있다.

여기에 23일 ‘버리들은 크리스마스’ 무대에서는 비발디 ‘사계’ 겨울 1·2악장과 다양한 캐롤이 연주되며, △30일 ‘Adios! 2025!’ 공연에서는 현악중주로 영화 OST와 벨라 판타지아 등



인형극 ‘손님’ 포스터

서정적인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계북행복나눔터 1층 인형극장 꼭두에서는 장수군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사업 선정작인 인형극 ‘손님’이 18일부터 20일까지 평일 오전 10시, 주말 오후 2시에 공연된다.

아울러 장수군 청년 예술단체 ‘아미모’가 준비한 청년미술작가 초대전 ‘조용히 반짝이는 날들’이 1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장안문화예술촌에서 진행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몰’ 연매출 첫 11억원 돌파

3년 만에 5배 성장... 15일부터 ‘회원 감사 이벤트’ 진행

장수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몰’이 연매출 최초 11억 원을 돌파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2년 연매출 2억 원에 불과했던 ‘장수몰’은 2023년 하반기부터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8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11억 원을 달성하며 전국 지자체 운영몰 중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3년 만에 약 5배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다.

장수군은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장수물 판매상품의 다양화, △시기별 품목 입점 전략 △다양한 프로모션 운영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등을 꼽

았다.

특히 군은 기존에는 사과, 한우, 토마토, 오미자 등 일부 대표 농특산물과 가공품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사인머스켓, 껌팩패키지, 절임배추, 장수사과빵, 떡, 계란, 장미, 산양유 등으로 판매 품목을 다각화했다.

또한 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가수가 직접 부른 ‘장수좋다’ 홍보영상, SNS 마케팅, 군 대표축제·직거래 장터 연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성과를 견인했다.

여기에 장수군과 서울시 등에서 진행된 각종 오프라인 판촉행사와 연계



해 ‘장수몰’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홍보를 통한 신규 회원 가입 유도에도 집중했다.

군은 이번 연매출 10억 원 돌파를 기념해 그간 ‘장수몰’을 이용해 준 회원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15일부터 전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해당 할인 혜택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 1계정 기준 최대 3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쿠폰은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무주반딧불배 전국 피구대회’ 개최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제1회 무주반딧불배 전국 피구대회’가 지난 13일과 14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피구연맹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 무주군교육지원청, (재)amm, 대한피구연맹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수 등 1천 3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13일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 회장, 한수용 전북피구연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을 비롯해 13세~19세 학생들의 예선 리그전 및 결선 토너먼트 경기가 치러졌다. 14일에는 학생 부문 결승과 20세 이상 동호인 친선 교류전이 펼쳐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과 함께하는 태권도 교실 운영

무주군은 지난 13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문대성과 함께하는 태권도 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모두의 예체능(대표 안경현)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태권도 수련 학생들과 일반학생 50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2004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자 IOC 선수위원(2008~2016), 2017 무주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을 지낸 문대성 광주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석좌교수로부터 태권도 기본 자세와 발차기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문대성 교수는 송만 격과 체험으로 태권도에 관한 흥미를 이끌어냈으며, ‘레전드와의 만남’에서는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며 뜻깊은 추억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자살수단 차단 사업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한 2025년 자살수단 차단 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살수단 차단 사업’은 자살에 자주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수단과 환경을 찾아 접근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올해 △5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50개를 신규로 보급한 것을 비롯해 188개 보관함을 점검·관리했으며, △주차장 내 자살 예방 안내판 19개 설치, △공동주택 옥상 13곳에 설치된 자살 예방 안내판을 점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반개탄 판매업소, 숙박업소, 농약 판매업소, 약국, 우체국 및 택배 업체 등 59곳의 ‘생명 사랑 실천업소’가 함께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신고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예방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식품안전관리분야 유공 기관 표창 수상

진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2025년 식품안전관리분야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표창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기관 단위 표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진안군은 최근 5년 간 단 한건의 식중독 발생도 없는 ‘식중독제로’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계절별 취약 시기 집중관리, 업소 대상 교육 등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다.

또한 지역 축제와 각종 행사에서 운영되는 먹거리 부스에 대해 현장 중심의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해 식중독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식품안전 환경조성에도 기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